상인이 꽂은 말채찍에서 자란 향나무

지정번호	인천-4-5-1
지정년도	1999
관리기관	인천
수령	510년
수고	15m
흉고둘레	3.6m

인천 남동구 간석로42번길 5

37 ° 28 ′ 00.10 ″ N
126 ° 42 ′ 45.63 ″ E

1999년에 지정된 보호수(인천-4-5-1) 향나무는 주택가와 길가 사이의 작은 쉼터에서 높게 자라고 있다. 향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360cm, 밑동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12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에서 굵은 가지가 3~5개가 순차적으로 갈라져 있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고, 높이 5m 정도에서 동쪽 방향의 굵은 가지가 절단되어 있다. 지주 9개가 나뭇가지를 받치고 있다. 주변은 도로와 함께 10m 직경의 경계 팬스가 둘러져 있고, 그 바깥에 의자 및 운동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 몇 가지는 각기 다른 내용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전설은 옛날 어느 상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다. 상인은 시원한 물을 떠먹고 나서 말채찍을 꽂아두었다. 땅에 꽂은 말채찍은 점차 잎몸이 뾰족한 향나무로 자라났다. 또 이 향나무를 신라의 위대한 학자 최치원의 17세손인 최립이 그의 사랑방 뜰에 손수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이씨 성을 가진 동네 어르신에 따르면 이곳 향나무는 원래 이씨 왕조였던 효령대군의 직계 손인 이언섭 장군이 심었다. 이언섭 장군이 자신의 백마를 메어두던 말목이었다. 동네 어르신은 옛날에는 전주 이씨 문중이 이곳 향나무 아래에서 시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한다. 시제를 지낼 때면 소머리를 우려낸 국물에 흰쌀과 기장으로 밥을 지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당시 고깃국을 먹기 위하여 긴 줄이 이어졌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선농단에 관한 사료에서 찾을 수 있다. 성종 7년(1476년)에 축조된 선농단은 조선왕조가 조상께 제를 올리던 곳인데, 이곳에도 큰 향나무가 있었다. 기록에 보면 제수로 사용한 막걸리는 향나무에 뿌려 주고, 소를 잡아 큰 가마솥에 국을 끓여 백성들에게 나눠 주던 것이 왕가의 풍속이었다. 지금의 설렁탕도 이같은 풍속에서 유래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매년 음력 1월 1일과 8월 15일에 이 향나무 아래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